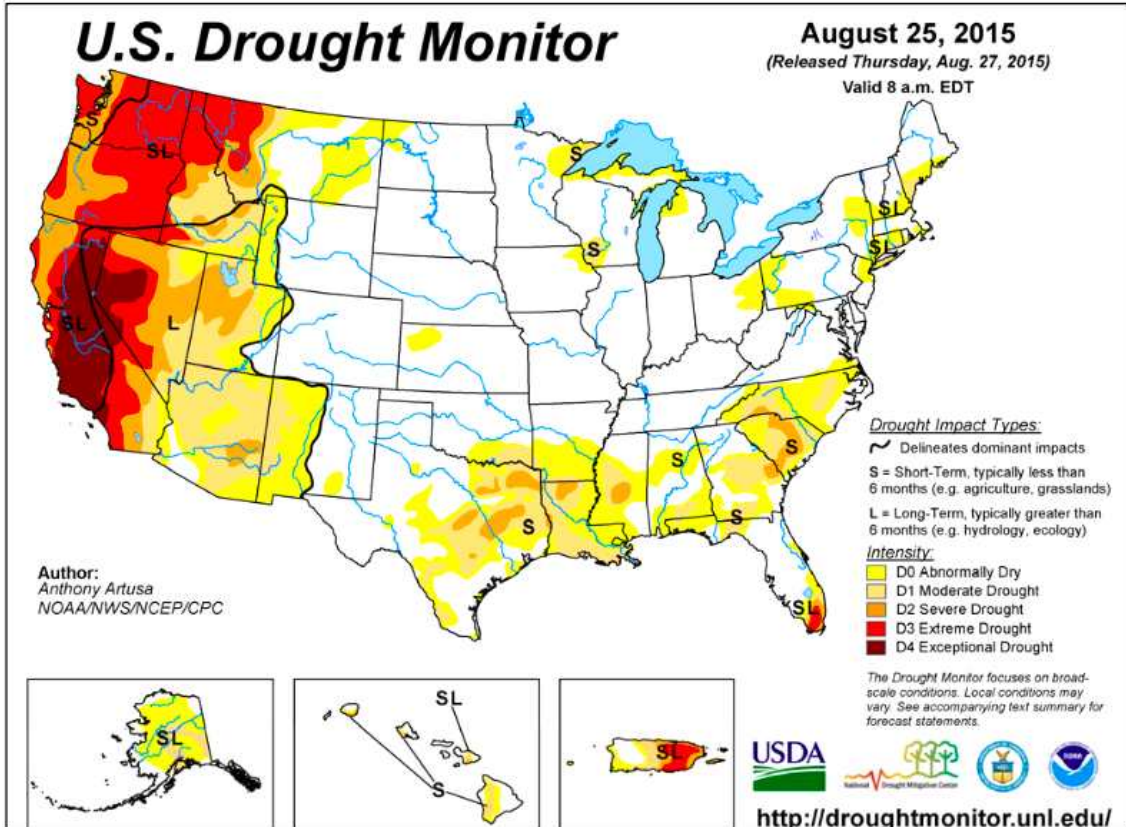


9월 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35)

□ 미국 기후 현황(8/23~8/30)



열대성 태풍 에리카(Erika)는 플로리다에 상륙하기 전 소멸되었지만, 남아있던 구름의 영향으로 애틀란타 남부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 차갑고 건조한 대기가 남부와 동부에 머물렀으나, 뉴 잉글랜드 북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렸다. 중서부 지역에서도 서늘하고 건조한 날씨가 기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5°F 낮은 기온을 유지하였다. 네브라스카 동부와 위스콘신 남부, 아이오와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고, 옥수수 지대 서부 지역을 제외한 중동부 지역 일대는 옥수수와 대두 생육에 좋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대평원 일대에서도 농작업을 진행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네브라스카 서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100°F까지 오르기도 했고, 몬타나 동부에서도 100°F 가까이 기온이 올라갔다. 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북서부 일대에서는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다.

□ 농업 현황 요약(8/24~8/30)

아이오와를 제외한 전역에서 지난 한주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아이오와 북부와 중부에서는 지난 한주간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기도 했으며, 강수량은 4~6인치 정도였지만 웹스터(Webster), 해밀턴(Hamilton) 등에서는 10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다. 아이오와와 미주리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8° 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하였고, 서부의 캘리포니아, 몬타나 일대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5° F 이상 높은 기온을 유지했다.

■ 옥수수

8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호숙기(dough stage)에 도달한 재배지 비율은 92%이며,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3%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2%p 앞선 상황이다. 같은 기간 기준 황숙기(denting stage)에 도달한 지역의 비율은 60%이며,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10%p 앞서지만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다. 18개 주 가운데 8개 주에서 지난 한주간 황숙기에 접어든 재배지 면적이 20%p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적으로 수확을 앞둔 지역의 비율은 9%이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2%p 앞서지만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6%p 늦은 상황인데, 이는 옥수수 지대 일대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날이 많은 탓에 옥수수의 생장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며, 콜로라도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늦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치이고,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에도 6%p 뒤쳐진 상황이다.

■ 면화

8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면화 송이가 형성된 비율은 94%로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약간 뒤쳐진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2%p 늦은 상황이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면화송이가 벌어진 재배지 비율은 2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7%p, 직전 5개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5%p 늦은 편이다. 텍사스와 대평원 일대에서는 아직 수확기에 접어들지 않았지만, 블랙랜드(Blackland)의 일부 재배자들은 수확작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54%가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1%p 증가한 수치이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4%p 높은 수준이다.

■ 쌀

8월 30일 기준 전국 출수율은 97% 수준이며 이는 작년 동기와는 비슷한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2%p 앞선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주말까지 26%의 수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0%p 앞서고, 직전 5개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다. 전텍사스에서는 지난 한주간 수확률이 20%p 증가했고, 미시시피의 경우에도 12%p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응답자의 66%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는 같은 수치이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8%p 하락한 수치이다.



□ 세계 기후 현황(8/23~8/29)

■ 유럽: 북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린 반면, 남부 일대에는 여전히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대에서는 12~70mm 내외의 비가 내려 농지를 촉촉하게 적셔주었다. 반면, 폴란드와 발틱 국가들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33°C 내외를 기록하는 등 더운 날씨를 이어갔고, 비도 거의 내리지 않았다. 발칸반도 일대에서도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낮 최고기온은 33~37°C까지 오르내렸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5~50mm 내외의 비가 내려 수확을 앞둔 겨울작물과 봄철에 심은 여름작물의 더위에 의한 스트레스를 일부 해소해 주었다. 스페인에서는 맑고 화창한 날이 이어져 수확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겨울말과 보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구소련(서부): 맑고 따뜻한 날씨 덕분에 여름작물은 수확을 앞두고 잘 여물고 있는 상황이고, 겨울밀 파종작업도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서부의 경우 기온이 평년보다 5°C 이상 높은 날이 이어져 낮 최고기온이 35°C 가까이 오르기도 했지만, 우크라이나 남서부 지방과 몰도바에서는 보다 낮은 기온을 유지했다. 그밖의 지역에서도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여름작물의 생산량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지난 6월과 7월에 강한 햇빛에 의한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의 4주 연속 이어진 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여름작물 생산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겨울밀 파종작업은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 동아시아: 중국 북동부 일대에는 10~25mm의 비가 내렸지만, 이번 비가 생산량 전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북동부 지역은 올해 초 기승을 부렸던 가뭄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부 평원지역에서는 10~50mm의 비가 내렸고, 지난 한주간 이어졌던 가뭄을 다소간 해소해 주었다. Yangtzer 계곡 일대에서는 맑고 화창한 날씨 덕분에 수확작업이 시작되었으며, 남부 지역의 경우 25~100mm의 비가 내려 벼 재배지역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일본 남부에서는 태풍 고니가 상륙했는데, 상륙 당시 최고 풍속이 110노트(knots)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매우 강한 상태였으며 남부 일대에 100mm 이상의 비를 뿌렸다. 태풍은 동해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남한과 북한에도 25~100mm 내외의 비를 뿌렸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400mm 이상의 비가 내려 강이 범람하는 등 홍수 피해도 발생했다.

■ 호주: 서부와 남부, 빅토리아주 북부에는 1~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겨울작물 재배지의 가뭄을 일부 해소해 주었다. 하지만, 빅토리아 북부의 보리와 밀, 카놀라 재배지 일대에는 지난 6월 중순 이후부터 평년보다 낮은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뉴 사우스 웨일즈 전역과 퀸즐랜드 남부 등에서는 10~30mm의 비가 내렸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으며, 수확량 전망은 매우 밝은 상황이다. 동부 일대는 평년보다 2°C 정도 기온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남부와 서부 지역은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고 있다.

■ 아르헨티나: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2~4°C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으며, 낮 최고 기온은 Buenos Aires 지역에서는 20°C 초중반, Cordoba 북부와 Salta 일대에서는 30°C 이상 오르내리고 있다. 이삼일 동안 밤기온이 5°C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밤에도 비교적 따뜻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작물들의 생육상태는 매우 좋은 상황이다. La Pampa와 Buenos Aires 북부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으며, 남부와 동부 일대에만 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8월 27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97%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밀의 수확률은 99% 이다.

■ 브라질: 남부 일대에는 지난 몇 주간 이어졌던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와 달리 꽤 많은 비가 내렸다. Parana와 Rio Grande do Sul 등 주요 곡창지대에서는 25mm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했고, 동부의 Santa Catarina 지역에서는 50mm 이상 비가 내리기도 했다. Parana 주 정부의 기상자료에 따르면, 8월 24일 밀의 수확률은 4%이며, 나머지 재배지 가운데 65%도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Rio Grande do Sul의 경우에도 8월 27일 기준으로 밀 재배지의 15%가 개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Mato Grosso, Mato Grosso do Sul, Minas Gerais 남부 지역에서는 10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로 사탕수수와 커피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반면, 북동부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3°C 정도 높았으며, Mato Grosso와 Goias, Tocantins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C에 이르기도 했다. 남부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KREI
국제곡물

주간보고 Weekly Report

2019.9.1.

<http://grains.krei.re.kr>

 KREI

